

# 가장 낮은 키로 가장 높은 곳 오른 '작은 거인'

'V12' KIA타이거즈 2024년 결산 <2> 내야수 김선빈

“프로에 입단할 때부터 ‘키가 작아서 안 된다, 한계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MVP 수상으로 신체 조건이 중요하다는 편견을 어느 정도 깬 것 같다.”

165cm, 호랑이 군단에서 최단신인 내야수 김선빈이 올해 한국시리즈에서 MVP를 거머쥐며 프로야구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단기전으로 치러지는 포스트시즌의 특성상 미친 선수가 나와줘야 하는데 김선빈은 소리 없이 강한 모습으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김선빈은 이번 한국시리즈 다섯 경기에 모두 선발 출장해 타율 0.588의 불방망이를 과시했다. 홈런과 결승타 등 데일리 MVP를 받을만한 화려한 활약을 없었지만 17타수 10안타 3볼넷 1사구 2타점 3득점으로 타선에서 최고의 기록을 냈다. 수비에서도 무실책으로 결점이 없었다.

정규시즌의 뜨거웠던 타격감이 더 화끈하게 달아올랐다는 의미를 담은 수치다. 김선빈은 정규시즌에서 0.329의 타율로 57타점과 48득점을 생산하며 김도영(0.347)에 이어 KIA에서 두 번째로 좋은 타격감을 자랑했다. 한국시리즈에서는 1.8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특히 김선빈이 한국시리즈에서 올린 득점의 영양가는 만점이었다.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에서는 0-1로 뒤진 7회말 선두

2009년 명단 제외·2017년 조연 프로 데뷔 16년만 KS 중심 우뚝 소리 없이 강한 활약... MVP 수상 “신체 조건 중요하다는 편견 깨”

타자로 나서 불넷을 얻어내며 출루한 뒤 임창민의 폭투에 홈을 밟으며 동점 득점을 올리며 대역전극의 시발점이 됐다.

이어 4차전에서도 1-0으로 앞선 3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좌전 안타를 만들어냈고, 소크라테스의 적시타에 홈으로 돌아오며 KIA 타선이 6득점 빅이닝으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는데 시발점 역할을 했다.

한국시리즈에서는 대개 임팩트가 큰 선수에게 MVP가 돌아간다. 2009년에는 7차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친 나지완, 2017년에는 2차전 완봉승에 5차전 터프 세이브를 챙긴 양현종이었다.

이번 한국시리즈에서도 4차전 만루 홈런을 때린 김태군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기자단 투표 99표 중 김선빈이 46표, 김태군이 45표를 받으며 단 한 표 차이로 MVP의 주인공이 됐다. 꾸준한 활약을 투표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로써 김선빈에게는 이번 한국시리즈가 2009년과 2017년의 아쉬움을 완벽히



KIA타이거즈 김선빈이 지난달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승리하며 4선승을 선점, 우승을 차지한 뒤 MVP를 수상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털어낼 수 있는 무대가 됐다. 김선빈은 프로 2년 차였던 2009년에는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승선하지 못하며 TV로 우승을 지켜봐야 했다.

2017년에는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발탁됐고 다섯 경기에 모두 나서 14타수 5안타 3볼넷 1타점 3득점을 기록했지만 주연보다는 조연에 가까웠다. 양현종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몰렸고 타선에서도 로저 버

나디나와 나지완, 이범호 등이 임팩트를 남기면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표현했다.

김선빈은 한국시리즈 MVP 수상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우승했고, 한국시리즈에서 MVP를 받았다는 의미가 너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프로에 입단할 때부터 ‘키가 작아서 안 된다, 한계가 있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 MVP 수상으로 편견을 깬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내가 신인일 때보다 단신 선수들이 많고 잘하고 있다. 단신 유망주들이 프로에 오면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편견을 깬다는 것이 선수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이정호 “올해 최고의 상대, 긴장되고 설레”

광주FC, 내일 비셀 고베와 격돌 동아시아 선두·일본 선두 맞대결



장단 첫 아시아 무대 도전에서 광주FC의 전승 행진을 이끌고 있는 이정호 감독이 비셀 고베와 맞대결을 앞두고 “강한 압박과 높은 점유율로 신나고 즐거운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이 감독은 4일 일본 효고 고베 미사키공원 경기장에서 고베와 2024-2025 AFC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4차전을 하루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공식 경기를 40경기 넘게 했는데 그중 내일 만나는 고베가 가장 강팀일 것”이라며 “올해 붙었던 그 어떤 팀보다 전진성이 좋다. 긴장도 되고 설레는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얼마나 신나게 할지 생각이 들고,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베는 올 시즌 J리그에서 20승 7무 8패(승점 67)를 기록하며 선두에 올라 있다. ACLE에서도 2승 1무(승점 7·득실 +3)로 2위에 오르며 광주(3승·승점 9)를 바짝 추격하고 있어 쉽지 않은 경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 감독은 “이번 경기도 재밌게 제 스타일대로 할 생각이다. 기존에 해왔던 스타일에 전술적인 부분을 더해 한국어로 ‘돌이대보겠다’는 말처럼 해보겠다”며 “우리 선수들이 부셔지든 고베 선수들이 부셔지든 광주만의 스타일로 제대로 부딪혀보겠다”고 예고했다.



광주FC 이정호 감독이 4일 일본 효고 고베 미사키공원 경기장에서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이 감독은 최근 고베의 경기 스타일을 분석하며 전진성을 키워드로 꼽았다. 고베의 강점인 전진성을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는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기보다는 상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 맞대응하겠다”며 “고베는 요코하마, 가와사키와는 스타일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피지컬적인 부분을 활용하고, 롱볼이나 세컨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기존의 J리그 팀들과는 상반되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형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생각과 정반대의 경기를 해서 놀랐고, 이런 부분이 선수들에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됐다”면서도 “우리는 이기기 위해 준비하지 않고 골을 넣기 위해 준비한다. 공간을 핵심적으로 생각하며 준비하기 때문에 내일도 광주만의 스타일, 이정호만의 스타일로 신나고 즐겁게 부딪히는 축구를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4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24-25 핸드볼 H리그 미디어데이에서 남자부, 여자부 각 팀 감독과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것”

2024~2025 H리그 미디어데이 오세일 감독·정현희 소감 밝혀 선수 보강·부상선수 복귀 기대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내년 1월 1일 개막하는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에서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성적을 목표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국핸드볼연맹(KOHA)은 4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청담 베르사이유홀에서 핸드볼 H리그의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미디어데이에는 남자부 6개 구단과 여자부 8개 구단 지도자와 선수가 참가해 두 번째 해를 맞이하는 H리그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은 내년 1월 2일 오후 6시 청주 SK호크스아레나 체

육관에서 경남개발공사와 시즌 첫 경기를 시작으로 약 4개월 간 21경기를 치르는 대장정에 나선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지난 시즌 부진했던 성적과 침체됐던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 부상선수들을 방출하는 체질 개선을 강도있게 진행했다”며 “이번에 새로 영입한 선수와 기존의 젊은 선수들을 통해 올해보다 나은 성적으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피벗 연지현과 센터백 김지선, 라이트백 조연서 등 3명의 신인선수를 보강한 만큼 스피드 있는 공격과 안정적인 수비로 한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전 선수의 부상 등으로 약세였던 피벗 포지션에 대해 1라운드 지명을 통해 즉시 주공격수 투입이 가능한 연지현(한체대)을 영입해 전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FA 대상 선수였던 박조은 골키퍼의 SK슈가글라이더즈 이적 희망에 따른 골키퍼 빈자리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인 이민지를 발빠르게 영입해 전력 누수를 막았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23~2024 핸드볼 H리그 정규리그에서 7위에 머물렀다. 핵심 공격수인 강경민의 SK 이적과 원선필(피봇), 송해수(센터백), 정현희(라이트백), 이아현(레프트백) 등 주전선수 부상으로 선수 기용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부상 선수들이 복귀할 예정이어서 2년 만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정현희는 “지난 시즌 부상선수가 많아 좋지 않은 성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시즌에는 몸관리 잘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최동환 기자